

반격 나선 국민의당 “與 조동원 봐주기” 공세

박선숙·김수민 오늘 영장 심사
구속 땀 ‘새정치’ 큰 타격
검찰 공정한 수사 촉구

국민의당이 발각 뒤흔쳤다. 지난 8일 검찰이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총선 홍보비 파동 수습을 위해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의 사퇴까지 동원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를 막 가능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안철수 전 대표는 외부 인사와 만나던 중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받고 아무런 반응 없이 말을 아꼈다고 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평소와 달리 금요일인 이날 지역구를 방문하지 않고 여의도에 머무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당 소속 범조진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경우 11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미루지 않고 출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적으로 다투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존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실제로



작업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의 편파적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의원, 박 비대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두 의원이 구속됐을 경우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을 때 논의 끝에 ‘기소 시 당원권 정지’라는 당헌·당규상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안·천 공동대표의 사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안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다. 당이 창당 때부터 기치로 내건 ‘새정치’는 물론이고 정책정당 이미지도 크게 손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강력 반발했다.

특히 “문제가 된 ‘무상 동영상’이 30여 개나 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돼 있으며, 선관위가 보도자료 배포를 외부 압력에 의해 연기하려 했다는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A 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에그림’ B 대표에게 선거운동을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행위에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의 선관위는 야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며 “편파적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10일 오후에도 이용주 법률위원 등 윤사 출신 의원 및 안전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다시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이날 오후 통화해 야권 공조로 국회안행위 소집을 요구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장외 레이스 시작 대선 비전 구상 돌입…호남 민심 확보 관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귀국하면서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계급장’을 떼고서 장외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은 당분간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할 자신의 브랜드를 가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두 사람에게 그리 녹록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정당대회를 앞두고 당분간 ‘로우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는 ‘홍보비 파동’의 여파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호남 민심의 흐름은 대선을 노리는 두 사람에게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난 4주간 네발과 부탄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9일 국민행복론을 새 화두를 들고 귀국했다. 문 전 대표는 당분간 경남 양산의 자택에 주로 머물며 책 집필에 나서, 오는 8월 정당대회 이후 이를 출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서 출간이 대권 행보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책에는 네발·부탄에서의 경험 뿐 아니라 한국정치 전반의 문제나 국가의 역할, 국민행복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더민주의 전대가 문 전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당권 경쟁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대까지는 공개 행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남의 지지 확보도 큰 과제다. 텃밭 민심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권기도도 역시 순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도 지난달 29일 대표 타이틀을 떼고 평의원으로 돌아갔다. 당분간 공개 행보 없이 내년 대선에서 제시할 핵심 어젠다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강연에서 “강한 편지를 맞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발언,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대권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다. 대표직 사퇴 카드까지 썼지만 당의 ‘총선 홍보비 파동’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호남 민심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 전 대표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의 대권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주선 ‘광주시내 면세점 설치’ 개정안 발의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에 면세점을 들이설 수 있게 할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구)은 11일 광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도록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와 광주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박 의원은 “국비 8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 시내면세점이 단 1곳도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찬바람 ‘더민주’

8월 전당대회

뜨거운 ‘새누리’

정병국·한선교 출마선언…서청원·나경원 결단 임박

秋·宋 이후 후보 없어…홍행 부진 노심초사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 구도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송영길 의원을 제외하고 제3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제 원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청래 전 의원 등이 인지도가 높음에도 친노 성향의 당원들로부터 나름의 지지를 받고 있어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 측 인사도 “아직 전대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시간이 있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상곤 전 교육감의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원외 인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의 이중걸 의원이 출마를 놓고 소통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중도 진영의 김진표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가 지난 9일 귀국하면서 전대 구도 역시 변화가 생기기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거론중인 제3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전국적 관심과 흥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김 빠진’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았던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진박(진박근혜)계의 서청원 의원 출마 압박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서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으로 내려가 고심하고 있지만 비박(비박근혜)계는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 김용태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항마로 4선 나경원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나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청원 의원이 나온다면 전대 후 당의 모습이 국민에게 가까이 가기는 어렵고,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게 기폭제가 됐다. 나 의원은 측은 10일 “주변에서 직접 나서서 철저한 혁신과 쇄신의 기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 서울 의원 중 최다선인 데다 유력 대권주자급 인지도를 갖춘 나 의원이 결단만 내린다면 대략 30만명이 유권자인 전대에서 조직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이날 정병국, 한선교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